

Dave Mathewson 박사, 신약문학, 7강 마태복음 서문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7, 마태복음 서론을 강의하는 David Mathewson 박사입니다.

좋아, 계속해서 가자. 환영.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침내 구체적인 신약 본문 자체에 들어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경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순서를 따르지 않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순서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음으로 분석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능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사고 능력, 분석 능력을 가져오지만, 또한 텍스트를 당신의 말씀으로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구체적인 복음서, 특히 우리가 말했듯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신약성서를 읽을 때 신약성서를 듣고 읽는 일차적인 배경, 또는 전경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구약이다.

신약성경은 새롭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기 초반에 신약성서는 구약성경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월한 것이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닌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약속과 성취로서 옛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절정이자 성취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은 단순히 구약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쓸 때 가정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야기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약성경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했을까요?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조사를 기억한다면,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주로 앗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빼앗아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전히 자신들이 아직 유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제국이 모든 것을 다시 장악하게 되면서 그것은 더욱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읽는 모든 내용은 로마 통치의 맥락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인들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며 죄로 인해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곧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반복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의 일이 옳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도 결국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라. 당신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네 복음서의 공통점은 이 이야기의 결론과 이 이야기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복음, 세리의 복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에 관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복음서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펴고 제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제목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원래 그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는 익명이었습니다. 즉, 이야기는 익명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것처럼 본문 어딘가에는 그것을 쓴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기술적으로 익명이었습니다. 저자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러한 제목은 실제로 나중에 교회에 의해 추가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서를 모아서 성경, 정경, 정경으로 인식하면서 이 제목을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제목을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의 대부분은 복음서에 아주 일찍부터 붙어 있었습니다. 3, 4, 5, 600년 후에 그들이 집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교부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기의 증거 중 일부에서 아주 초기에 첨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으로 여긴다. 우리는 이미 마가를 말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 복음의 해석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설교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복음서에 붙인 제목이 복음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신, 나중에 교회는 이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Matthew),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Matthew)는 실제로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 읽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그의 추종자 중 한 사람으로 부르신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마태복음을 읽을 때, 나는 모든 복음서나 모든 글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단지 책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각 섹션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요에 관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개요가 책의 구조와 전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때입니다.

개요는 책이 구성되는 방식과 전개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의 주요 구조적 특징 중 하나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를 거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각 복음서의 독특하고 독특한 점을 살펴보는 데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서.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 독특한 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일하면서, 우리는 마태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그가 강조한 것이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거나 적어도 마태가 한 것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마태가 복음서를 정리한 방식입니다. 즉, 마태복음 계획에서 마태는 예수 가르침의 다섯 가지 주요 담론, 즉 다섯 가지 주요 블록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담화의 첫 번째 블록, 첫 번째 주요 부분은 빨간색 글자로 된 성경이 있다면 이 부분 전체가 빨간색 글자로 표시될 것입니다. 나는 빨간 글자 추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를 다섯 차례에 걸쳐 긴 담론을 가르치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꽤 잘 알려진 산상수훈입니다.

13장에 있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러 오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련의 긴 비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다면 왜 로마인들이 있고, 왜 가이사가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로마인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는 일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건너뛰면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고, 흔히 알려진 방식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감람산 담론이나 종말론적 담론.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고 추종자들에게 구원을 제공하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비유는 이 가르침의 블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섯 가지 가르침 블록에 따라 자신의 복음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부분의 끝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가지는 이 다섯 부분의 담론 각각의 끝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끝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런 다음 Matthew는 다른 섹션을 시작하고 결국 또 다른 긴 담론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가르침의 블록, 또 다른 담론의 블록,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꽤 긴 담화 블록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예수를 가르치시는 분으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다섯 가지 담화 블록이 예수께서 모세처럼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시거나 제시하시는 분임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처음 다섯 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용어인 오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다섯 블록이 예수를 모세처럼 율법을 가져온 새로운 인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다섯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다섯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처럼 새로운 율법을 주신 분으로 제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는 예수를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태는 이 다섯 가지 설교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가르치고 가르치기 위해 오시는 분으로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도 예수에 대한 긴 가르침을 갖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 중 어느 것도 이 주요 다섯 가지 담화 블록, 즉 예수의 긴 가르침을 따라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주요 특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자체를 보기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중에 다시 범위를 넓혀 도대체 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매튜는 어느 날 앉아서 그리스도의 생애나 21세기 대학 학생들이 New Testament Survey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글을 쓰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매튜가 그것을 느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복음서를 쓰는 데 꼭 필요한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실제로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완전한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해 꽤 많이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실 것입니다. 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의 모든 것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마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합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의 족보를 말씀하시니라. 그 소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Matthew가 그의 그리스-로마 전기의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메시아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보좌에는 항상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와 다윗 가계의 아들이 왕좌에 앉을 때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 책이 메시아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면서 즉시 자신의 책을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메시아 왕이 오실 것이라는 구약성서의 약속과 연결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나중에 살펴보게 될 문제는, 문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좌에 앉은 카이사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의 기대를 성취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떻게 메시아, 기다려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카이사르가 그의 왕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다윗 왕의 출현에 대한 약속과 분명히 연관시킵니다.

다시 사무엘하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아들이 항상 그 보좌에 앉을 것이며, 그 보좌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아들이 나리니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훌륭한 모사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정의롭게.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윗의 가계에서 장차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예상했고,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 예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나 그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는 다윗 왕에 관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모세의 아들, 이삭의 아들, 다니엘의 아들, 이사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아니겠습니까? 구약성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무엇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뭐? 아니면 노아는 왜 안 되나요? 아니면 태초로 돌아갈 수도 있었던 아담.

왜 아브라함인가? 마태가 예수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제시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약전서의 아브라함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에게서 큰 나라가 나올 것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 후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세상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세상에 퍼져 나가셔야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로 큰 나라와 큰 이름을 얻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답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상황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을 구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답하시고 유대인들의 죄와 포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아브라함과 연결함으로써 예수께서는 구원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수단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가 방금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면, 유대인 메시아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과 연결시키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실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 매우 빨리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이 예수를 단지 유대인 유권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는 인물로 일관되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절은 나머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왕인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결국 땅 끝까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족보는 1절이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나와 같다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건너뛰고 실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예수께서 법적으로 다윗의 왕좌에 앉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족보의 주된 기능은 예수께서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입양된 법적 아들로써 다윗의 보좌에 앉을 법적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아니시지만,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의 정상적인 관계와는 별개로 잉태합니다.

예수는 육체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만, 요셉이 그 이름을 지을 때 법적으로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 다윗의 보좌에 앉을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도 족보는 14대씩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숫자 14는 실제로 David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글자 수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왕이시며 다윗의 자손임을 보여주는 사례를 매우 예술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야이십니다. 그러므로 족보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권리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방인 강조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바는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께 반응한 것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축약된 목록일 수 있습니다. 매튜가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포함해야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 세 개의 숫자, 즉 세 개의 14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보에도 포로 생활이 언급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 생활을 끝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하고 있던 모든 이야기는 이제 그 성취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께 반응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마태복음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8장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또는 여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유대인의 비유는 잔치였습니다. 즉, 식사를 하거나 잔치를 벌이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를 주목해 보세요. 그분이 이 잔치의 이미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으리라. 이제 동서양에서 온다는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의 유대인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잔치,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대표자의 이 잔치는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라고 느꼈을 이 잔치에 이방인, 곧 동서양의 사람들이 올 때를 상상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잔치는 다시 말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시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은유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그 일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이방인들도 식탁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매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나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그래서 복음은 온 민족을 복음화하라는 부르심으로 끝납니다. 즉, 이 오실 왕, 이 메시아, 다윗 계통의 이 예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구출을 베푸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르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방인 포함의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는 다른 몇 가지 사항과 마찬가지로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즉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누가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했지만, 흥미롭게도 마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태는 동방 박사들, 즉 동방박사들을 불러 예수님을 방문하게 합니다. 루크는 그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그들에 대해 몰랐거나 마태가 목자들에 대해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그들의 목적과 실제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선별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말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을 전달하는 정보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우선, 동방 박사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박사는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빌론 출신의 점성술사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별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구약성서에도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강조할 점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이 별, 즉 점성술사들을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경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동방박사들이 점성술사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서사에서 음모나 코미디를 거의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처음으로 들른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사실을 읽어보면요.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것은 베들레헴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뒷문 바로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소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 롭습니다. 나는 이 바빌로니아 점성가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위해 먼 길과 오랜 시간에 걸쳐 여행한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희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뒷문으로 나가지도 않고 베들레헴까지 가까운 거리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헤롯은 흥미롭게도 박사들에게 가서 이 아이를 찾아보고 찾으려면 나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왜 헤롯 자신은 갈 수 없었습니까? 베들레헴은 뒷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 즉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거리를 여행합니다. 그런데도 더 잘 아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가까운 거리까지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장과 4장도 잠시 후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탄생에 관한 기록 직후에 다른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마태도 예수의 성인 사역에 바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1세에서 2세 사이이거나 마태복음 2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예수님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전기를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예수님... 예수님 이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 여러분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우리는 돌아가서 그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예수와 베들레헴의 다른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모는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결국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성인 사역에 뛰어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다음 사건으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헤롯에게서 도망칩니다. 그는 이집트로 간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달립니다.

그는 이집트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성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매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선 2장에서 확신하는데 이는 구약을 배경으로 2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서 흥미로운 점, 즉 예수의 세례와 유혹에 대한 평행점을 살펴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흥미롭게도 구약성경을 거쳐 신약성경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굴복하여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담처럼 그분은 아담을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담을 그분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파업 2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의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어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혹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만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짓거나 굴복하지 않으시지만,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인류를 참된 운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세기 1장에서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를 깨닫게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유혹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에 저항하셨는지에 대한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다시금 마태복음인 마태복음이 구약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아담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이클,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처럼 시험을 받아 그 순환을 깨뜨리시지만 그들과 달리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아들이 되십시오.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실 자격이 있으시고 이스라엘과 땅의 모든 나라에 구원을 베푸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따라서 구약성경 이야기의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임했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축복이 임하고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부르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아담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나 그들이 죄로 인해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성취한 구약성경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의 빛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제 예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묘사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하려면 매우 부주의한 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어떻게 소개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분은 결코 나오셔서 그분을 모세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가 원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신탁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태가 구약성서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모아서 함께 엮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절정에 이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시지만 이제 마태는 그분이 또한 새 모세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또한 모세가 기대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던 이상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구출하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제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롭고 더 큰 모세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는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합니까? 응, 아주 좋아. 예수께서 이집트로 가신 후 마태가 그 본문을 인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의 맥락에서 그것은 선지자 호세아의 인용문입니다.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원래 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애굽을 그의 아들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가져오는 일종의 새로운 모세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가 모세와 비슷하지만 더 큰 인물로 묘사되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는 외국 왕의 시도로부터 그분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없습니다. 돌아가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외국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 모든 남자 아기를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마태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구약성경과 다시 연결되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이려는 외국 왕의 시도를 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한 것과 같이 이제 예수께서는 더 큰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하고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 묘사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이방의 빛으로 묘사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는 일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제공하실 구원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현자들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우선 중요한 고위 인사들이다.

매우 중요한 고위 인사들, 외국 이방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의 빛을 따라 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글쎄, 결국 베들레헴이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는 외국 고관들, 중요한 개인들,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별의 빛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왕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사야 60장을 들어 보십시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때 하실 일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그의 백성과 새로운 창조물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이사야 60장입니다.

여기있어.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은 네 새벽의 빛으로 나아오리라.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들은 모두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온다. 네 아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다.

당신의 딸은 간호사의 품에 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보고 빛날 것입니다. 바다의 풍요가 네게로 오고 이방인의 재물이 네게로 옴으로 네 마음이 기쁠 것이니라

수많은 낙타가 너를 덮을 것이다.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과 스바의 어린 낙타들이 올 것이다. 이 외국 왕들은 금과 유향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왕들과 함께라면 나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고위 인사입니다.

이 왕들과 이방인들이 별빛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금과 유향을 예물로 드리며 마태가 말한 대로 예수께 경배하는 가운데 이사야 60장의 이 약속의 회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약속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입니다. 그 왕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고관들과 이방인들이 별빛을 따라 여행하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금과 유향을 풍성한 예물로 드리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사야서 60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반복되고 실행되고 성취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멋진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약성서로 다시 데려가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구약성서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에 관한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매튜가 뭘 하는지 보셨나요? 그는 실제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그 장면을 놓치지 않도록 제작하고 있다. 이 박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멋진 성탄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0장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의 성취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유에 있는 이 아기 안에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약속된 회복을 이루기 위해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다.

열방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벽 빛에 응답하여 예배하고 선물을 가져올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다른 실이 있는데, 이는 마태가

마치 구약성서에서 이 모든 끈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모두 묶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찾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성서에 한쪽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마태는 단지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약에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이야기의 연속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출생 이야기, 특히 2-4장과 그 기능에 관해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주요 가르침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고, 우리는 그들 중 몇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잘 알려진 산상수훈(5-7장)입니다.

산상수훈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문맥을 조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5장과 1절부터 읽기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2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더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사야가 약속한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왕국, 즉 산상수훈의 맥락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왕국을 이미 가져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응답으로 가르쳐졌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강력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왕국이 이제 도래했으며 이제 그 빛에 비추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7장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막 머리 꼭대기에서 설교를 시작한 것은 단지 상황에 맞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장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5-7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있고 마태도 가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구약성경을 성취하여 이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왕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에 비추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5-7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이것이 이해하기 위한 의미는 마태복음 5-7장에 나오는 마태의 산상수훈이 주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마태도 주로... 마태가 취급되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산상수훈의 주된 목적은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척도를 놓고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선택은 당신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설교가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의도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단순히 당신이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며, 희망적으로 당신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련에 대한 믿음을 신뢰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한 자, 이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산상수훈이 단순히 모든 사회를 위한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척도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하나님 왕국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 가르침, 지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으로 따를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그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제 설교는 마태복음 5-17장의 매우 흥미로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런 종류의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개와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러 오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 완벽하게 지키러 오셨습니다. 그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Matthew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마태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취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취의 개념은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것은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께서 그것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성취란 예수가 어떤 것이 가리키는 것의 목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율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점은 그게 아니고, 마태의 요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말 그대로 순종해야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것이 실제로는 참된 의도이고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의 목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이 가리키는 목표라는 점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소위 대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세례를 주는 것,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모세의 율법? 그분의 제자들은 민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법? 십계명, 제사에 관한 율법, 모세서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대해 마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거기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중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표현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이제 더 큰 이가 오셨으니, 모세보다 더 큰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중심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에서 발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진정한 성취이자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이것이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왕국에 들어가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국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모세 율법보다

이제 여기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학기 초에 우리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인 그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라는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식별하는 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반응했을 것이지만, 그 중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대신에 그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예이며, 이 왕국에 들어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왕국을 경험하고 구약에 약속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산상수훈에 대해 몇 가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역사와 문학, 강의 7, 마태복음 서론을 강의하는 David Mathewson 박사입니다.